

안동의 꽃 여행지도

안동, 계절마다 조용한 꽃천지로 탈바꿈하다

안동의 꽃은 화려하지 않다. 평생 퇴계선생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매화는 퇴계 선생이 오랜 시간 비슬을 통해 지쳐있던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함을 가졌고, 작은 꽃을 피우는 산수유는 빨간 가을의 열매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 결코 화려하지 않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안동의 꽃여행, 재 이제 출발이다.
낙동강변 금계국단지에서서 활짝 핀 금계국

❁ 퇴계선생의 매화

안동시내에서 봉화방면으로 35번 국도를 따라 30분 정도 이동하면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 주차장에서 마주 보이는 길을 따라 언덕을 넘으면 퇴계종택과 종택 앞에 펼쳐진 매화 꽃밭을 만날 수 있다. 개화시기 : 3월 20일 경



❁ 선비꽃, 산수유

초록의 바다 위에 노란점이 꼭꼭 안동시내에서 봉화방면 35번 국도를 따라 가다 보면 노오란 산수유 가로수 길을 만날 수 있다. 개화시기 : 3월 27일 경

❁ 강변의 벚꽃

안동댐인근 월영교주위로 핀 벚꽃과 길 안동댐 KBS 수상촬영장으로 가는 길, 안동댐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소방서 뒷길(벚꽃도로)부터 태화소공원까지의 2km 구간에서 즐길 수 있다. 개화시기 : 4월 10일 경



❁ 금빛연못, 금계국

낙동강변에서 남안동, C & 안동병원 방면으로 가다보면 안동대교 건너기 전 낙동강변둔치에 금계국이 넓게 펼쳐져 있다. 개화시기 : 5월 20일 경



❁ 병산서원의 배롱나무

껍질이 없어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하여 서애 류성룡선생이 심고 아꼈다는 배롱나무. 그 배롱나무의 화려한 꽃이 5월 말부터 병산서원과 봉정사 영산암에서 핀다. 개화시기 : 5월 말부터



❁ 그윽한 향기, 국화

봉정사 주변 1만평에 달하는 국화꽃밭. 서후면 태장리 삼거리에서 봉정사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그윽한 국화향과 함께 아름다운 국화꽃을 볼 수 있다. 개화시기 : 약 10월 중순~말경



❁ 하얀 눈꽃, 메밀 꽃

약8만평에 달하는 북후면 신전리의 메밀꽃밭 안동에서 5번국도를 따라 북후면 소재지로 이동 한 후 웅천에서 928번 지방도를 따라 약 20분 정도 이동하면 된다. 개화시기 : 약 9월 25일~9월 말경



❁ 천등산, 참꽃

봉정사가 자리잡은 천등산에는 분홍빛 참꽃이 수줍게 핀다. 개화시기 : 4월 중순부터



❁ 길안, 사과꽃

길안사과로 유명한 길안에 봄이 되면 사과꽃으로 뒤덮인다. 개화시기 : 4월~5월

